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당신이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이 문구는 고대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주로 사용했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한동일, 「라틴어 수업」) 나만 잘살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남이야 어떻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 요즘 세상에서,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로마인들의 이 인사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어떤 이득을 얻어낼 목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의 바오로 서간들에 담긴 인사말에서도 같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로마 1,7 등등)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이라 생각하며 스쳐 지나갔던 바오로 서간의 이 구절들이 요즘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수용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출소자들의 근황이 궁금하여 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먼저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진심으로 그들의 안녕을 바랐던 바오로 사도께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타 교정시설로 이송 가서도 편지를 보내주는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이송 간 곳은 더 열악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느꼈다고, 직업훈련 받으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출소하면 받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꼭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읽고 있으면 더운 날씨에도 한결같이 찾아오고 기도하던 봉사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출소자의 안부가 궁금하여 연락해보기도 합니다. 출소 직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또다시 절벽 끝에 몰리며 불안해했던 분이 지금은 일도 하며 관심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 제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렇게 서로의 안녕을 물으면서 이웃을 “연게 되는” 기분입니다. 무언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마음속으로 판단하며 따지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소식을 주고받으며 “함께 사는 것”이라 생각하니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가 병들어 아프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변화와 치유를 위해서는 사랑이 담긴 관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시장이 어떻고, 경제효과가 어떻고 하며 돈의 논리로만 관심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녕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랑의 논리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다음과 같은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는 악한 것이 자라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라. 바로잡길 원하면 사랑으로 바로잡아라. 그대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하라.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만이 싹을 것이니”

각 교정시설 옥서기 얼음물 지원



각 교정시설(성인, 청소년)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수와 특별 간식을 지원 하였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26,000명), 서울남부구치소(17,000명), 서울남부교도소(6,500명) 모든 수용자 에게 생수를 지원하였고,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 청소년들에게는 7, 8월 매주 1회(총 10회)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더위에 지쳤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서울구치소 남사 세례식



7월 18일(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3명, 19일(수) 서울구치소 남사 3명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미사에 함께한 모든 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축하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느끼 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담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7월 22일(토)~23일(일) 청담동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송정섭 시몬 신부는 강론을 통 하여 “100명 중 1명은 하느님을 알고 달라지는 수용자가 있기에 교정사목의 필요성을 느끼며, 100명 중 1명의 후 원자가 있기에 후원회원 모집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1명의 기적을 보고 1명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합니다.”라 며 ‘처벌’ 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청담동성당 주임 신부님과 신자분들,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8월 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최남식 베드로(살레시오회)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8월 축일을 맞이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 다. 현대일 신부님을 위해 특송과 영적 예물을 준비해주신 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8월 9일(수)~11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되 었던 여름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갓(GOD) 생(生)으로 살 아가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봉중고등 학교 여름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의 신부님 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김현주 마리아_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아주 우연한 계기로 봉사 활동에서 만나게 된 친한 자매님의 소개로 고봉중고등학교 종교활동 시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표봉사자님과 여러 선배님의 도움으로 참여 수업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님, 부위원장 신부님, 살레시오 수도회 신부님, 수사님, 여러 선배 봉사자분들께서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존경하는 마음과 무관심했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라는 호칭 때문인지 무언가 큰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5~36) 말씀과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학생들 옆자리에서 함께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묵상하고 교리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크신 은총과 깨달음을 얻으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레시오 수도회 신부님, 수사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선생님들의 복음 묵상 말씀과 교육활동에서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며 회개하고 치유받고 위로받아 사회로 잘 복귀하여 빠르게 적응하기를 바라며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모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모두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며,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판단하거나 단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며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부님 수사님 봉사자 선생님들을 모범으로 삼아 빠르게 사회로 복귀하여 기뻐하는 모습, 꽃처럼 아름다운 환한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아멘



봉사와 후원의 모범 룻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룻은 히브리어로 친구, 이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룻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수용자들의 친구,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봉사자, 후원자의 모범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인 경우는 룻기와 에스테르기, 그리고 유딧기 뿐입니다. 에스테르와 유딧이 유대인으로 유대민족을 구해낸 여성이지만, 룻은 이방인인 것을 생각하면, 더 대단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친인척이 없는 이민족 모압 지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던 과부 나오미와 역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는 정말 당장 입에 풀칠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미는 당장 자신을 도와줄 친인척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침 유다지방은 풍년이 되었나봅니다(룻 1,6). 그렇지만 유다 민족도 아니고, 나오미와 연결이 있는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두 며느리에게는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새 남편을 맞을 희망이라도 있는 두 며느리(룻 1,9)는 고향 땅에 남아서, 고향 친척 사람들과 지내다가 새 남편을 맞거나, 짝기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길라도 할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니다. 동서가 고향 모압에 남기로 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듯싶습니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성품과 신앙이 훌륭하여 며느리가 존경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다 땅으로 떠날 때, 며느리들에게 새 삶을 살라고 놔주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룻 1,8-13). 당시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손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력이고, 또 부의 척도였습니다. 아무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도 노구로 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젊은 일손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모로 든든할 텐데, 떠나보냅니다. 자신이 한 끼 밥 차려 먹기도 쉽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 자기 삶을 살라고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부갈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면서 생기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오미는 며느리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떠나보냅니다.

물론 나오미의 처지가 비참했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이민족 지방으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룻 1,1),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남아 이민족 며느리를 들었

는데, 십 년 후 또 아들 둘이 죽은 상황(룻 1,4-5)도 기가 막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을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이 몸”(룻 1,13)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제 나 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라리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 주셨답니다.”(룻 1,21)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룻의 성품입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립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룻 1,16)

룻에게 낯설고 혹은 두려운 곳일 수 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공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미 하느님에 대한 신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유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성품은 널리 알려질 정도로(룻 1,11). 그렇게 착하였습니다. 사실 이방인으로 땅에 떨어진 이사를 줌은 비참하고, 또 두렵고, 부끄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 이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습니다(룻 1,7).”

우리 교정사목 봉사자님들과 후원회원님들의 마음에서 룻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감옥에 있는 수용자분들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출입하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기쁨’(나오미) 인생을 살던 이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쓴’(마라) 맛을 겪고 있는, 갇힌 이들의 ‘친구’, ‘이웃’(룻)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심과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이웃사랑의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이삭줍기가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룻은 성실하게 행하였고, 결국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또한 아시다시피 복음서의 구세주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았다. 오벧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마태 1,5-6).

작지만 꾸준히, 그리고 정성을 다한 봉사와 후원은 정말 수용자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조금씩 사회를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사목 봉사자분들과 후원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용자 형제·자매님들 역시 주변의 다른 수용자 형제·자매님들의 룻이 되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 보내고, 꿈을 이루는 급행열차 티켓!

이형일 프란치스코하비에르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4개월간 진행하는 자원 봉사자 교육 과정 중에 수용자가 출소한 후 창업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기쁨과희망은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금융기관에서 30여년간 근무한 저는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선뜻 은행의 운영위원을 맡았습니다.

막상 기쁨과희망은행에 참여해서 보니, 출소자에 대한 대출 심사는 일반 은행의 대출 심사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중은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출소자는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은 깊은 능력이 있어야 대출해 주지만 출소자들은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쁨과희망은행 기준은 달랐습니다. 설사 깊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혼자 일어서고자 하는 노력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돈’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왔던 저는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노력하고자 하지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제대로 키워나가지 못하고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에 정자들이 사전에 창업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 방법, 시장 조사와 환경 분석, 기초적인 세무와 회계, 신용 회복 방법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업 전략, 온라인 마케팅 방법, 그리고 기업이 정신 고취 프로그램과 창업자에게 필요한 마인드 셋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용자들이 출소 이후 부딪치는 가장 큰 난관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선호하나 원하는 곳에 채용되기는 쉽지 않아 그들이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창업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창업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업하겠다고 마음먹어도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축 전문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였을 때 출소 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출소를 앞둔 수강생들이 원하는 창업 업종은 요식업이었고 그중에도 카페가 많았습니다. 크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용자는 게임산업과 투자자문업과 같이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업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원하는 수용자 중 상당수가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용자들도 창업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자 교정시설의 관계자와 수용자 모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하여 1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이미 20여 회의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 교정시설에서도 강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강좌 기간이 3일이나 5일 정도이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창업의 성격상 강의실 교육과 현장 경험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교정시설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만 합니다. 또한, 일대일 멘토링과 출소 이후 창업 지원 등 수료 이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의 눈을 보면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쉬는 시간에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강좌가 끝난 후 그들 손에 쥐어지는 수료증이 이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 보내고 이들의 간절한 꿈을 이루는 급행열차의 티켓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수용자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멘.

담장 안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되어 천주교 집회에 참여 중인 정OO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눈물로 이겨내며 아무 종교 없이 홀로 거실에서 생활하던 저는 작년 9월경 같은 방 동료의 추천으로 천주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 나름의 마음의 평온함과 은혜를 얻었다고 여기게 되어 몇 자 적어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한구석의 따스함을 천주교 미사 예식에서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레 기도를 드리고 러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작은 소리만으로도 예수님을 찾고 기도를 드리는 저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글을 올리는 저는 이론 후 미성년자였던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자녀들을 홀로 키우다 해악으로 이어지는 죄를 범하여 아이들만 사회에 남겨둔 채 이곳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한 채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만의 욕심과 이기심, 잃어버린 경각심으로 이곳에 수감 되어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의 힘겨움과 두려움을 안겨준 못한 아버지인 저는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남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천주교 집회와 미사로 교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저 나름 삶의 부정함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만들어갈 준비를 하려는 중입니다. 제가 천주교 세례를 받고 제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스스로 없이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리는 바입니다.

짧은 어휘력과 무지함의 긴 글을 읽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와 세명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OO 올림

*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OO 형제님이 송정섭 시몬 신부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형제님과 자녀들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23년 10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0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9월 1일(금)~22일(금) / 매주(월, 금)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국군교도소
- 9월 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9월 4일(월)~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남사
- 9월 6일(수)~10월 11일(수) / 매주(수) 제24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 센터터
- 9월 12일(화)~15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9월 18일(월)~21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안양교도소
- 9월 20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3/7/13~8/11)

2023년 7월~8월에는 **홍양희, 청담동성당 154명**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THOMAS K KIM AND ANASTASIA S KI, 김성훈, 청담동성당 69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